

UNCED, 그 이후의

〈하〉

—범국민적 환경교육을

그동 안 2회에 걸쳐, UNCED회의 이후의 우리나라 환경대책에 관하여, 필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첫번째는 그 무엇에 앞서 정부의 정책이 환경보호 우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지적 했고, 두번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만연하고 있는 반 환경보호적 사회의 제도가 하루 속히 환경보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환경보호의 체질화 내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한다. 즉, 유년기 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의 학과과정에 환경보호 과목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일반 사회인을 위해서는 직장과 지역사회를 통해 환경교육이 실시되는 범국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길만이 당연한 환경문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해강국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오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어 공해대국으로서 세계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간의 생활습관은 다분히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부터, 반복되는 생활에서 습관이 되고, 타인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을 때부터, 습관을 바르게 갖는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육이라는 1차적인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자연의 질서나 생태계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교육은 그런 직접적인 문제를 푸는 것 보다는 정직과 질서 그리고 상식적인 삶을 생활하는 교육이 환경교육의 바른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처는 물론, 교육부와 심지어는 환경교육을 활동의 기본으로 자처하는 단체와 학회 그리고 많은 환경교육 전문가들조차 환경교육이라면, 애써 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환경교육이란 한마디로 공유물의 인식교육이다. 즉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왕도로 정직과 질서 그리고 상식을 손 꼽는 것이다. 즉, 정직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많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뿌리는 정직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 된다. 자기 집의 나무는 잘못 될까보아 겁내고, 또 마당에는 휴지 한장 허트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나무를 꺾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공유물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와 상식적인 삶의 경우도, 〈우리〉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질서와 비상식적인 삶이 결국 우리라는 최선의 공유 인식을 외면하는데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나〉보다 〈남〉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최선으로 여길 때, 자연은 보존되고 환경이 보호 된다. 그런 차원

대책

실시해야 한다. —

의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다.

1.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가정교육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가정교육에서는 그 무엇보다, 절약을 우선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무엇이던지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정에서부터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어른들부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야한다. 휴지 한 매디, 물 한 방울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절약정신이야말로 환경보호 생활화의 첫길이다.

말로는 절약이 쉽다. 따라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도록 모든 생활에 절약을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휴지의 경우,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의 틀을 없앨 필요가 있다.

즉, 두루마리 휴지들은 필요 이상의 휴지를 풀어 쓰게 한다. 따라서 그런틀을 없애면 조금 불편하지만 일부러 휴지를 풀어 써야 하기 때문에 몇 매디의 휴지는 아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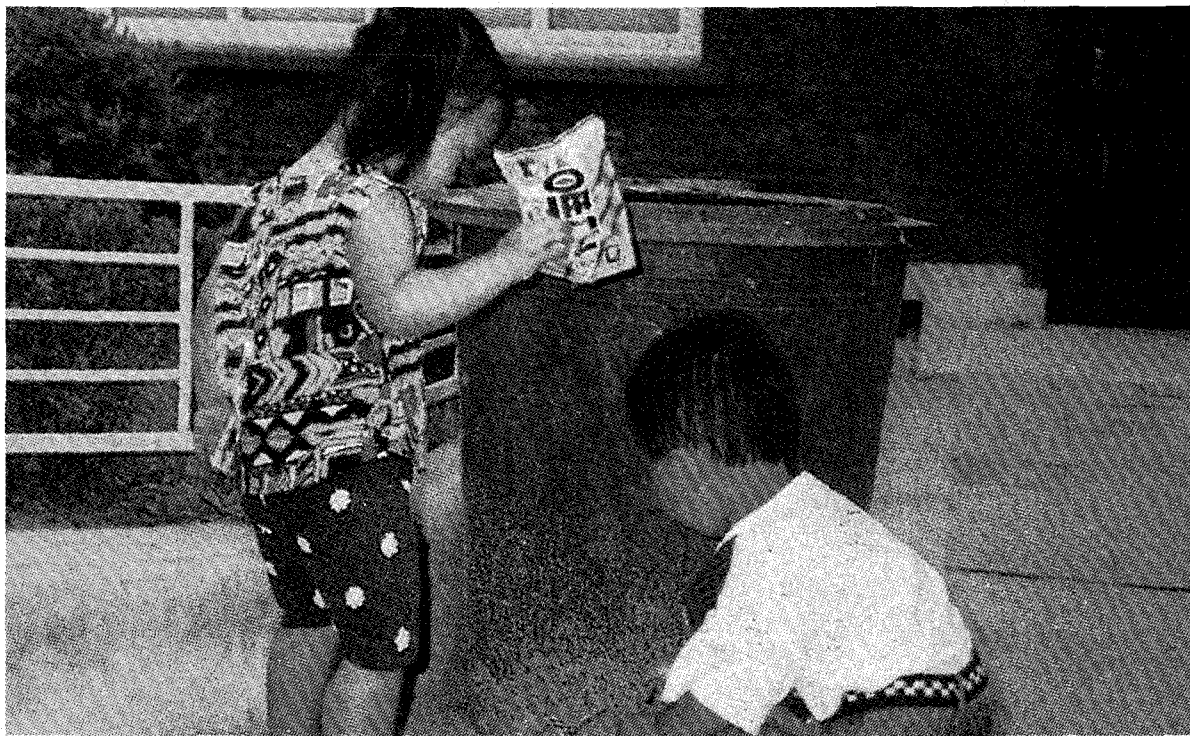
그리고 물의 경우 세면대 옆에 큰 물통을 비치해 놓고 물을 받아서 쓰면 수도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거나 면도를 하는 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의 경우도 형광등의 갓을 자주 청소해 주면 그만큼 밝기를 더 얻어, 보조등을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서 리모트 콘트롤로 조정하는 TV를 보고 있는데, 이때 리모트 콘트롤을 잃어버리면, 불필요하게 이곳 저곳을 틀어 보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기실, 리모트 콘트롤은 편하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채널을 자주 바꿈으로서 전력을 더 낭비하게 된다.



환경교육이란 한마디로 공유물의 인식교육이다. 즉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왕도로 정직과 질서 그리고 상식을 손 꼽는 것이다. 즉, 정직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많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뿌리는 정직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 된다.



따라서 용단을 갖고 리모트 콘트롤을 없애 버리면 불편해서 채널을 필요 이상으로 바꾸지 않게 될 것이다.

이토록 우리의 생활속에는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이런 생활의 패턴을 바꿈으로서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기할 수 있음을 가정에서 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른들이 이런 생활을 습관적으로 보여주면 어린이들도 이를 배워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미래의 환경은 보다 아름답고 쾌적해질 것이다.

2.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국민학교에서의 교육

요즘, 자연보존과 환경보호가 큰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또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국민학교의 교과서에 자연보존과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대폭 삽입되고 있다. 좋은 일이나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꼭 그런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야 한다는 것은 환경교육이 무엇인지를 모

르는 단견이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찬 교과서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세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과거에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무지에서 저질러졌다. 그런 때에는 자연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입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무지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에 의한 정직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삶을 사는 정직교육이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본이 공해대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보호를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원인의 뿌리는 바로 정직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거의 모두라고 할 만큼 정직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정직이 삶의 기본이며 가치고 그것이 앞으로 사회를 살아 나가는 근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정직한 삶을 인생의 바탕과 철

UNCED회의 이후의 세계 질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애매한 상황의 입장에서는 더욱 환경문제에 따른 불이익과 눈총을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을 것을 호소한다.

학으로 삼도록 국민학교 전 과정에 정직을 바탕으로 깔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가 부정직으로 가득차 있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정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국민학교 교과과정에는 애써 정직을 심어 국민학교에서부터 정직을 무장해야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민학교와 중학교 등의 교과서에서 자연과 환경보호에 관해 제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 거의가 용어 풀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즉, 국민학교 교과에는 국민학생에게 어울리게 그리고 중학교 교과에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과 환경에 관한 용어 풀이 내지 내용 주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전식(辭典式) 환경교육은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적어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부합되는 생활환경의 이해를 위한 교과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부터 무리하게 환경을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국민학교에서는 다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면 된다. 애써 대기오염이 무엇이고, 수질오염이 어떻다느니 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기 전에 복잡한 환경문제를 주입시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연의 질서에서 정직을 배우면 그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3.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중학교 교육

중학교 초기에는 국민학교에서 배운 정직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직은 질서와 이어지도록 질서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질서는 아름답고

편리하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짜임이 질서있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는 질서의 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먹이사슬 까지도 질서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질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실생활에 대입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에서 배운 자연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질서의 가치로 승화시켜 질서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치라는 개념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회생활을 질서의 틀에 넣어야 한다.

물론, 중학교 교육의 중반에 들어서면 환경을 이해시키는 교과과목이 필요하다. 이때도 결코, ppm이니 아황산가스니 하는 환경적 용어의 이해로 접근하지 말고, 환경의 객관적 이해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인간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접합시켜서는 안된다. 되도록 환경의 영향으로 사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잘 이용해 살 수 있는가? 또는 환경이 악화됨으로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의 악화로 개인의 삶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변할 수 있다는 지구적 차원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의 교육은 생애를 통해 매우 중요한 인식을 심어준다. 사춘기의 예민한 감수성이 지식과 인식을 폭 넓게 수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의 지식 보다는 인식을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때 교육 받는 질서의 개념은 전 생애를 통하여 불변의 가치로 정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보다 접근하는 교육과 환경의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이 중학교에서 필요한 것이다.

4.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참여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물론, 자연생태계의 구체적인 접근과 환경의 질과 가치 등 다양한 접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다양한 환경문제의 접근이라고 해서, 피상적인 용어 접근이나 환경문제의 이론적 접근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제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핵심을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인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지식과 인식을 사회참여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올바르게 배운 지식과 인식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참여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개연성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파괴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가치체계가 더욱 중요하고, 또 파괴되고 오염된 문제를 복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참여의 가치를 생활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전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전공 이외의 학과에서는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홀하기가 쉽다. 그러나 어떤 과목에서건 그 전개의 내용을 자연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다룬다면 교양과 인식의 전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문학의 경우 그 내용이 자연과 환경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고, 경제나 경영학 등의 경우도 그 내용이 자연과 환경문제와 연관되면 1석2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대학생이면 적어도 자신의 전공 이외에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

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학문을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입시켜 바람직한 환경보호의 길을 찾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생태학의 기초와 포괄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6.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한 일반 사회교육

현재 새마을 교육을 비롯해 일반 사회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직장과 공공기관 단위로 실시되는 직능 교육 등 사회인을 위한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교육에 마땅히 환경교육이 배당되어야 한다.

적어도 환경문제는 지식과 인식으로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범국민 교육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과거 새마을 교육이 전국민 교육으로 활성화 했었던 경우와 같이 이제는 전국에 환경문제 교육장을 마련해 전국민의 환경보호 생활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제 환경문제는 범국민 교육으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주입교육을 탈피해 보다 과학적이며 생활적인 측면의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정에서는 환경문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약의 지혜>를 국민학교에서는 <정직>을 중학교에서는 <질서>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참여>를 대학에서는 <생태학의 기초>를 그리고 일반 사회교육에서는 <책임>을 갖는 그런 환경교육이어야 한다.

UNCED회의 이후의 세계 질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애매한 상황의 입장에서는 더욱 환경문제에 따른 불이익과 눈총을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을 것을 호소한다.

〈筆者 : 本會顧問 / UNEP 글로벌 500委員〉